

〈세미나〉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정 세 현*

1. 통일문화의 개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때 인간들은 문학 음악 연극 무용을 통해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려 해왔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괴리를 어느 사이언스가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마는 심리적 관성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현실과절감은 그것이 어떠한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든, 또 그것이 어떠한 표현방법으로 외화되든 간에 원천적으로 문제를 던져준 ‘사실’에서부터 점점 자기소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그리하여 우리의 심정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서 현존하게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내가 통일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뜻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다. 즉 통일의 당위성에 의문을 품거나, 분단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통일을 포기하거나 함으로써 통일의지가 식어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통일문화의 창조를 거론하고 그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85년 5월 23일 濟州 本大學 統一安保研究所에서 개최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 논문임.

*平和統一研究所 研究委員

통일문화라는 말에서 문화의 뜻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했을 때의 문화는 아니다. 통일문화라고 할 때의 문화는 포괄적인 뜻으로 쓰고자 한다. 즉 통일문화라는 말은 통일을 위한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과 관련되는 가치체계 행동양식을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과 관련되는 가치체계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통일문화의 창조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는 분단 40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 의식구조면에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남북한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문화라는 말 속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뜻과 아울러 통일 후에 마땅히 이 땅에 자리 잡아야 할 문화의 뜻 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는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집중될 일체의 소망과 노력이 실천하게 될 문화이고, 후자는 통일후에 지금의 문화적 단절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과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현재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두 가지의 통일문화는 한 칼에 붙은 양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의 전제가 되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문화 창조의 전제조건

흔히 통일을 민족사적 소명이니 최대과제니 하고 말들을 한다. 통일문화라는 말도 통일을 소명시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것을 소명시하고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고 열망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실마리는 분단이라는 ‘사실’과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라는 ‘의지’를 종합할줄 아는 예지를 키워나갈때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문제는 사실성과 당위성의 양측면에서 풀어나가야만 하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의 가능성은 원래부터 어디엔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문화도 발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분단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관계를 정신적 문화적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족성원간에도 적대감 불신감 및 경쟁의식이 과도할만큼 높아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된 주요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전쟁을 도발했고 대화기간중에 땅굴을 뚫기 때문이며 가깝게는 랑군사건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분단체제가 낳은 현실중에서 적대감, 불신감, 경쟁의식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남북한의 이질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초기에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차이만이 존재하였으나 분단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정치적 기구와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몸가짐, 생각하는 방식, 가족관계, 형제관계, 조상에 대한 생각, 선인들의 유제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차이는 이미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가 아니라 의사 전달수단과 투쟁정신 표현수단의 차이로 까지 퍼져 나갔고, 교육과 사회화의 목표의 차이는 인간성의 차이까지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가 북한공산집단의 일인독체체제를 유지하고 부자세습체제가 지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질화를 그대로 방치한다 할것같은데 설사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 대하듯 할 가능성이 높다 는 데서 이질화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치적 통일로서 한 민족이 한 국가, 한 정부를 두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민족 국가로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통일의 밑바탕에는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민족 성원들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뭉치려고 하는 기본관념이 있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해서 전자가 표면적인 통일이라면 후자는 내면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실한 통일은 내면적인 통일을 겸한 표면적인 통일이 밑바탕이 되는 내면적인 통일을 저해할 이질화가 진행된다면 표면적인 정치적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내면적 통일의 기초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표면적 통일이라는 것은 설사 그

것이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편이 다른편을 정복하였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한쪽이 생활태도를 강요했다는 평가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다. 민족끼리의 내면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위에 서서 정치적인 동질을 이룩해야 비로소 민족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면적 동질성 회복유지를 외면한 채 정치적 통일만을 얘기 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화합, 민주통일을 추구할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문화의 창조가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문화의 창조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라는 의지에서 출발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통일달성과 통일문화 창조에는 어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 역사의식이 좀더 재고 되어야 하겠다. 분단의 역사가 40년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통일의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은 민족적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란 것이 불려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각고끝에 다가서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통일과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역사의식도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하는 주어진 역사관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고 전망할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 몰입되어 있는 자기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과학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검증하는 준거일 뿐이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증거는 아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역사발전 및 변화의 능력이 라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나, 세계정신이 외화하여 자기를 구현시키는 것이 역사라고 한 헤겔의 관념사관도 기실은 지나온 역사를 풀이하는 준거였을 뿐이다. 역사는 오히려 변화를 갈구하는 인간의지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면 통일은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통일을 의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국제정치적 강국정치적 속성도 별문제시 하지 않게 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날때라야 비로소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二處競食之計, 驅處吞狼之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두번째의 전제조건은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는 일이다. 나와 너를 준별하고, 동지와 적을 차별하며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독단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통일이전에 통일문화 창조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우리로서의 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나와 너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란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이며, 대화의 협력은 무엇인가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회심리가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가치체계 행동양식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입각한 물리적 성취까지를 통일문화라고 한다면 통일문화는 ‘나’와 ‘너’가 ‘우리’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위위에서만 창조되고 발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세대를 넘는 긴 세월이 흐르기는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며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 형성해가고 있는 모든 문화의 체계가 사실은 통일과 직결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점에서 통일문화라고 해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의 그 창조행위는 통일의 되는 날 반드시 통일문화로서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과거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통일문화라는 것을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으로도 개념해야만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기 위해서는 통일문화는 나의 문화인 동시에 우리 문화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문화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을 공통기반으로 하면서 화합을 지향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이미 용해되어 있고 흔히 쓰여지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의 의미체계로 통합되어 쓰여지고 있다고 만은 장담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통일적으로 생각하고 획일화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민족·화합·평화가 나와 우리를 연결시켜 통일을 지고의 가치

로 여기고 모든 행동을 통일과 관계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통일을 생활의 일부로 여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민족사적 소명이자 최대과제인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화합·평화를 하나의 의미체계로 통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은 그것을 구호로 삼자는 것도 아니고, 교조주의적인 사회를 개방화 자유화시키고 전체주의적인 북쪽의 우리 동포들을 개체화, 민주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의 이념적 지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오류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의 의지와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에 발린 구호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족·화합·평화는 좀더 내면화되는 방향에서 하나의 의미체계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에 자리를 잡아 나가야할 것이다. 나와 우리를 조화시키고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기 위한 통일문화는 갈등의 해소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될 수 없다고 본다. 통일문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의 갈등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남북한은 체제내적인 갈등과 체제외적인 갈등을 안고 있다. 체제와 반체제의 갈등 자유주의 문화와 공산주의문화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들의 기본적으로는 체제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형성되고 재생산되어 오기는 했지만 갈등의 생성과 재생산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갈등에 대한 태도, 규범, 해소방식이 나름대로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갈등의 발생양식 전개과정 해소방식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면, 문화적으로 특성을 달리한다고 상정되고 있는 남북한의 통합을 전제하는 통일문화 창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문화와 자유주의문화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해서 통일국가로서의 사회적기반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갈등의 양식과 그 해소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체제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의 해소방식에 대한 연구는 표면적 정치적 통일을 이룬 다음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면서 내면적 통일을 이룩하는 단계 또는 그 이전의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 민족적 차원에서의 나와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제내적으로도 나와 우리는 있으며 체제내적인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조화 연결이 없이는 전 민족적 차원에서의 나와 우리를 조화시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지만 아직도 계속 문제로서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문화가 모방문화로서의 오명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은 남북한 민족이질화 극복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기약없이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헤어진 자리에서 기다리거나 적어도 그 주위를 맴돌기라도 해야 어느날 갑자기 돌아오는 사람을 쉽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보아도 그렇고, 나와 너를 이어줄 수 있는 공감대는 나와 너로 갈리기전의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질화를 극복하고 내면적인 통일을 달성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좀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화는 특정계급이나 계층이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로서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문화가 일인일족 또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을 찬양하기 위한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체제내적인 우리를 먼저 충실하게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4. 통일문화의 전망

통일문화는 민족이 가야할 방향과 서 있는 현실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그 길을 순탄하게 걸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개념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통일문화는 분단이후 줄곧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비로소 개념화가 시도되고 있고 내용의 체계화가 추구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 혼자서만 본 것은 아니지만, 뉴턴이 비로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개념화하고 난 뒤 그것이 이론화되고 객관화될 수 있었듯이……

어쨌든 통일문화라는 개념 제시를 통해서 통일운동은 질적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질적 전환이라는 말은 통일문제를 국민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역사적 대사변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사실상 준비가 시작되어야 할만큼 통일환경은 이미 바뀌어서 있다. 분단 40년의 시점에 이르러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본 이유는 국제환경의 성격변화와 남북한체제의 개별적 성숙이라는 두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소가 초강대국으로서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나 그들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했던 힘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어 왔으며 국제정치가 미·소 주도하의 두진영간의 대결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다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70년대부터의 일이다.

특히 중·소분쟁의 결과로 중공이 국제정치적 수역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적 역학관계의 다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자연자원의 정치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 대두도 국제환경변화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과정 속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중공이 70년대 말부터 현대화를 위하여 개방화를 추진해오고 있음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국제환경은 더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획기적 변화 속에서 남북한의 두 체제도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필요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적응이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40년에 걸쳐 각기 시도해온 근대화의 실험이 나름대로 각각 성숙기에 접어든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경제수준은 총량규모면에서 한국의 1/5 밖에 안된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진영의 수준에서는 가볍게 무시하여 버릴 수 없는 정도의 경제건설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숙한 북한경제는 성숙도와 더불어 한계성도 노정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폐쇄된 전체주의체제 안에서 강제적 노력동원과 중앙통제로 이룩할 수 있었던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룸으로써 북한체제는 그 존립을 위하여 전반적 개혁과 방향모색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통일문화 창조의 방향과 과제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는 경제외적 영역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었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 결정이 그 대표적 예다. 더우기 한국의 과감한 개방정책은 공산국가 특히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진전시켰으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지적한 국제환경의 변화추세에 적응하는 동시에 남북한간의 격차가 계속 넓어지는 것을 조속히 저지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정책과 체제로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김정일체제로의 권력계승을 위해서는 정책노선상의 전환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3 자회담의 여건조성이란 전략적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경제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 적응해온 것은 이러한 그간의 사정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과 수정의 필요가 상당한 기간동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남북접촉과 대화지속의 전망은 70년대 초반보다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접촉과 대화의 시대가 다시 열린 이 시점에서 분단 40년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민족적 수치감이 깃들인 반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휴전선이 남북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민족자해 행위를 얼마나 해왔던가? 동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력을 허비하였던가? 이러한 민족적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문화의 창조를 말하게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해가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40년동안 남북의 두개 사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40년동안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계속한다면 현재를 지양한 차원을 넘어서서 두개의 사회가 융합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의 세월동안 남북한의 사회변화가 민족사관의 관점에서 볼때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반성이 전제된다면, 앞으로의 남북한 융합을 위한 통일문화창조의 시간은 의외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